



제 1호 선플의료기관, 고려대 안산병원

의사와 환자가 소통하는 선플운동 펼칠 계획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이상우)과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2월 17일 16시부터 고려대 안산병원 대강당에서 이상우 병원장, 서성구 경영관리실장, 김정숙 간호실장(이상 고대안산병원), 민병철 이사장, 장익경 메디컬위원회 위원장, 김영신 메디컬위원회 부위원장(이상 선플운동본부) 외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선플의료기관' 으로 실천협약식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플운동은 악의적인 댓글인 '악플' 의 반대어로 2007년 5월 선플운동본부의 선플달기운동을 만들어 인터넷상에서 남을 헐담하고 비난하는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장려하였다. 현재는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건강한 문화만 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우 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선플(sunfull)의 햇살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의미처럼 안산병원 전 교직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대할 때 감사와 존경을 마음을 가지고 응대한다면, 병원 전체의 분

위기도 따뜻해지고 신뢰주고 사랑받은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며 "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모임들이 선플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1호' 라는 점을 강조하며 명성에 걸맞은 보건의료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은 "오늘 선플 개수 500만개를 돌파한 날에 고려대 안산병원과 협약식 및 선포식을 가져 정말 뜻 깊다" 라며 "선플운동본부를 통하여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문화가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아름다운 병원이 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또 장익경 선플메디컬위원장은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가능한 영어 쓰지 않기, 반말하지 않기, 환자는 의사에게 먹살잡지 않기, 욕하지 않기 운동을 펼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Contents

2p 헬스가이드
스키장부상/피부건조증/우울증



3p 칼럼
모유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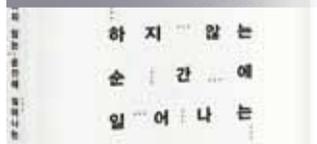
3p 영화정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4p 현장을 찾아서
연구관리팀 박병권 선생님



4p 신간소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5p 독자퀴즈
다른부분찾기



설원의 낭만을 제대로 즐기려면 부상 피해야

스키장 부상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발생하는 부상은 다양하지만 특히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단순한 염좌, 타박상에서부터 열상, 골절, 탈구, 인대 손상 등 다양한 종류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키를 탈 때 발생할 수 있는 다리의 손상으로는 무릎부위의 손상이 많고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전, 후방 십자인대, 내,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노우보드에 의한 손상은 주로 손을 짚으며 넘어질 때 손목골절이 흔히 발생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빙판에 머리가 부딪쳐 뇌진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키장에서 부상 후 별로 아프지 않다고 병원을 찾지 않는다가나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으니 골절은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넘긴다면 나중에 치료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본인 자신이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본인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기야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하며 몸이 피곤을 느낄 경우 반드시 휴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

도움말 | 정형외과 박종웅 교수

찬바람에 갑자기 많아진 각질, 때 밀지 마세요

피부건조증

피부건조증은 피부장벽기능이 약해져서 수분을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시기에는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쉬운데, 건조한 공기는 각질층의 수분을 빼앗고, 낮은 기온은 피부의 지방샘과 땀샘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피부건조증은 기능성 보습제로 피부지질보호막을 강화시키고 충분한 수분섭취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 섭취를 늘리고 과일이나 채소 등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때를 밀거나 뜨거운 목욕은 피부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1회 이하 15분 이내의 샤워가 좋으며 샤워나 세안 후에는 기능성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말 | 피부과 김일환 교수



겨울철 낮 시간 30분, 햇볕으로 우울감 떨치세요

겨울철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우울증은 실제 감기처럼 계절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빛과 활동량이 적어지는 가을과 겨울에 증가합니다. 우울증은 유전이나 심리적 요인, 대인관계나 경제적인 원인, 계절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우울감과 불안, 공허감, 절망감 등이 지속되고 죄책감, 무력감, 의욕상실 등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폭식과 체중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수면장애나 만성피로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이상 가을-겨울에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우울증 예방에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낮 시간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말 |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사회 ·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계산해 보면

모유수유



아기들에게 모유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적어도 돌까지, 특히 6개월까지는 전적으로 모유만을 수유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러한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아기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아기 및 소아기의 건강 그리고 수유하는 엄마에게도 많은 건강상의 유익을 가져 온다.

최근 미국에서 조사된 모유 수유의 사회 · 경제적 이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가정의 90%에서 출생 후 6개월까지 아기에게 전적으로 모유만으로 수유를 한다면, 아기의 건강 비용으로 매년 미화 138억 달러, 즉 한화로 15조 원을 절약할 수 있고 91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 금액에 엄마에게 유익한 건강 비용과 조제분유 수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한다면 더 많은 돈을 절약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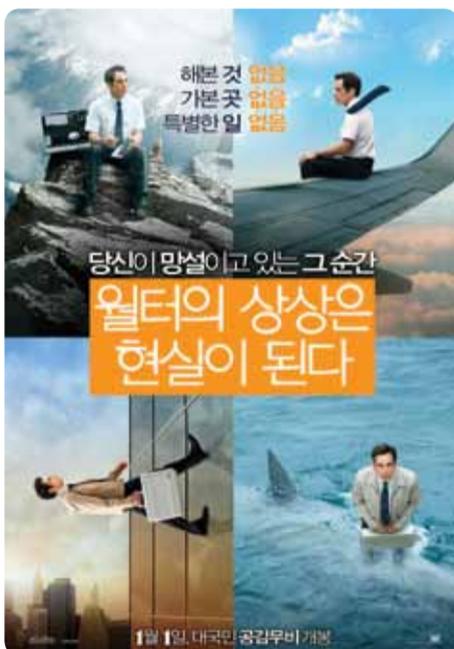
반면 출생 후 6개월까지 전적으로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소모 비용으로 산모에게 추가로 필요한 음식 비용, 산모의 육아 휴직 급여 비용 그리고 모유 수유 권장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 1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온다고 보고되었다.

모유 수유는 영아나 소아 그리고 엄마에게 건강상의 많은 유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도 가족, 직장, 지역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가정에서의 모유 수유 증진을 위해서는 산모 및 의료진 교육, 사회 홍보 그리고 육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범국가적인 지원 및 법제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움말 | 소아청소년과 최병민 교수

아직도 상상만 하고 계신가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16년째 '라이프' 잡지사에서 포토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월터 미티
해본 것도, 가본 곳도, 특별한 일도 없는 월터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상상!

어느 날, '라이프' 지의 폐간을 앞두고
전설의 사진작가가 보내온 마지막 표지사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사라진 사진의 미스터리를 풀기위해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진작가를 찾아 떠나는데...

지구 반대편 여행하기, 바다 한가운데 헬기에서 뛰어내리기, 폭발직전 화산으로 돌진하기 등
상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어드벤처를 겪으면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주인공 '월터'가 16년째 근무 중인 '라이프' 잡지사로 출근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회사에 오자마자 들린 소식은 '라이프'

지가 인터넷 잡지사로 구조조정 된다는 것. 마지막 인쇄잡지 발간을 앞두고 전설의 사진작가가 보내온 표지 사진이 사라지자 '월터'는 사진을 찾기 위한 특별한 모험을 떠나게 된다.

1936년 헨리 루스에 의해 창간된 '라이프'지는 '라이프를 보는 것은 바로 세계를 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해내며 한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한 주에 1300만 부를 찍어내며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으나 TV와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한 광고 급감으로 쇠퇴를 거듭하다가 2007년 4월 20일 자를 끝으로 71년 만에 최종 폐간 조치되었다. 인터넷 잡지사로 전환되는 영화에서처럼 현재는 인터넷 웹사이트 '라이프닷컴(www.life.com)'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월 초 개봉을 앞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는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벤 스틸러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가본 곳 없고, 해본 것도 없고, 특별한 일 없는 한 남자가 사라진 사진의 미스터리를 찾아 떠나면서 수많은 어드벤처를 통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감성 어드벤처. 스티븐 스필버그, 짐 캐리 등 할리우드의 내로라하는 명감독과 흥행 배우들이 탐냈던 제임스 서버의 소설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이 벤 스틸러 감독의 손을 거쳐 더욱 현실적이면서도 풍성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로 스크린에 옮겨졌다. 첨단 특수 효과와 전 세계를 넘나드는 대규모 로케이션, 아름다운 음악까지 더해져 오감을 자극하는 최고의 감성 어드벤처를 예고한다. 2014년 용기가 필요한 모두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감성 어드벤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2014년 1월 1일 개봉한다. 

서해안 시대의 연구허브를 구축한다!

연구관리팀 박병권

Q. 연구관리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정부정책이 의료복지와 더불어 의료산업화의 첨병으로서 대학병원에게 중개연구의 플랫폼, 허브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진료수익과 반대로 그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연구수의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인프라 정비와 국책과제 및 임상시험 수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Q.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A. 앞서 말씀드린 연구 인프라 정비와 대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증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지정신청 준비작업과 각종 연구계획서 작업을 기획 및 추진해 왔습니다.

Q. 연구관리팀에 근무하시면서 좋은점은요?

A. 먼저 새롭게 개척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배울 게 많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의 지휘 하에 연구업무관련 학습을 통해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각종 연구관련 자격증 취득과 교육을 통해 연구기획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지만 연구행정을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Q. 업무하시면서 힘들거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A. 이번에 보건복지부 융복합 과제를 제출하면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하여 모두들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잦은 야근과 밤샘 작업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뿌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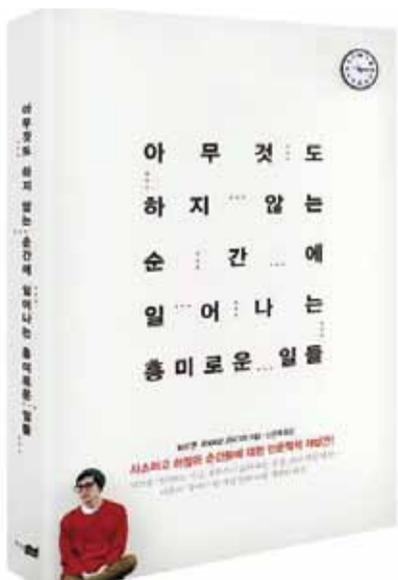
도 느꼈습니다. 가끔 힘들 때마다 3층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하며 서로의 근육(?)을 자랑했던 일 등 재미난 일이 많았습니다.

Q. 개인적으로 팀 내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 팀원들과 함께 기술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한 특허관련 자격증도 같이 취득하고 싶습니다. 업무역량향상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안산병원이 서해안 시대의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

사소하고 하찮은 순간들에 대한 기발한 해석



입장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줄을 서 있는 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양치질, 일하다 말고 잠깐 '멍을 때리는' 순간,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는 공상……. 보통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저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이자 지루한 순간들, 그래서 그동안 그 누구도, 심지어 학자들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쳤던, 즉 '죽은 시간' 이라고 치부하는 순간들에 호기심을 갖고 최초로 학문적으로 접근한 영

통하고 기발한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소위 '무위(無爲) 나 '비사건' 으로 표현되는 순간에도 실은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뒤에 숨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금을 밟지 않고 보도블록 걷기, 노래 한 곡이 끝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와 같이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는 사적

이고 유치하며 비밀스러운 순간들 역시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으레 하는 행동이고 동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무슨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일까? 스웨덴의 유명한 학자들인 빌리 엔, 오르바르 뢰프그렌 교수는 전 세계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을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와 참고문헌, 관찰, 각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이면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과 문화·사회적 의미를 분석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사고의 흐름과 잠재력,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명확한 연구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분야인데다,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체도 없는 순간들을 연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자들의 연구방법을 엿보는 것 또한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

출판사 지식너머

저자 빌리 엔 / 오르바르 뢰프그렌

역자 신선해

판형 152x225_신국판/A5변형판

언론에 비친 안산병원

2013년 10 ~ 11월

일간지

- 경부암·목·혀... '삶의 질' 과 직결되는 까다로운 암 - 이비인후과 권순영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윤원섭 교수 - 경향신문 - 10월 17일
- 코골이도 임플란트를 넣어서 치료한다? -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 조선일보 - 10월 28일
- 체계적인 협진 통해 양성·악성 종양 치료 탁월한 성과 - 산부인과 이낙우 교수 - 경향신문 - 11월 7일
- 자궁암·난소암 - 증상 없고 재발 잦고...女心 울리는 암 - 산부인과 이낙우 교수 - 경향신문 - 11월 7일
- 수능 전날 수면유도제 "NO" -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 동아일보 - 11월 6일
- 조기암, 내시경만으로도 완치 가능 시대 -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 - 동아일보 - 11월 27일
- 질환별 특성화센터 10개 육성... 연구-진료 함께 잡는다 -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 - 동아일보 - 11월 27일
- 술고래 김과장님 채소·과일로 건강 챙기세요 -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 - 서울경제신문 - 11월 29일

방송

- 아데노바이러스 - 소아청소년과 김윤경 교수 - 메디컬TV - 10월 9일
- 스테로이드 부작용 - 정형외과 김성곤 교수 - MBC 불만제로 - 10월 5일
- 감기 이기는 면역력 강화법 -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 TBS교통방송 라디오 - 11월 9일
-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삼킴장애 - 재활의학과 김동휘 교수 - KBS 건강플러스 - 11월 30일

독자퀴즈

독자퀴즈! 다른부분찾기



지난호 정답



두 사진에서 다른 부분(총 7군데)을 모두 찾으시고 홍보팀에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속:

전화번호:

직종:

가장 좋았던 기사 또는 코너는?

성명:

독자의 목소리

협력 병의원 친절교육, 화합의 시간 가져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이상우)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6시부터 대강당 2층에서 협력병의원을 초청하여 '서비스 질 향상 CS교육' 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약 150여 명의 병의원 관계자들 참석한 가운데 최근 환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증가됨에 따라 CS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점 높아감에 따라 협력병원의 유대강화와 협력증진에 대한 취지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김진수 고객센터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에스터(L-company)강사의 ▶ 환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CPR 대화법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메디컬 브릿지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교육 후 나눠준 설문지에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실무응용, 교육진행)가 상당히 높았으며, 추후에도 서비스교육, 민원환자교육, 적정진료관리 등의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고 기입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고객센터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금요일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열중했다. 특히 전 직종(의사, 간호사, 행정직, 의료기술직 등)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안산병원 고객센터팀에서는 소규모 협력 병?의원에서 진행하기 힘든 교육이나 건강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고객센터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금요일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열중했다. 특히 전 직종(의사, 간호사, 행정직, 의료기술직 등)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안산병원 고객센터팀에서는 소규모 협력 병?의원에서 진행하기 힘든 교육이나 건강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 준비하고 있다.

간호부 "응답하라, 간호부 FESTIVAL"



간호부(실장 김정숙)는 간호부 전 직원 화합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3일 본관2층 대강당에서 '간호부 FESTIVAL' 축제의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이상우 병원장과 서성구 경영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의 간호부 직원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정숙 간호실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도 풀면서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병원장은 축사에 "KAL 사건, 아시아나 사건, 최근 헬리콥터 추락사건의 발단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며 "이 행사를 통하여 간호부 전체가 더욱더 소통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다" 며 바쁜 와중에도 행사를 준비한 간호부와 안산병원 전 간호사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이상우 병원장과 서성구 경영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의 간호부 직원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정숙 간호실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도 풀면서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병원장은 축사에 "KAL 사건, 아시아나 사건, 최근 헬리콥터 추락사건의 발단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며 "이 행사를 통하여 간호부 전체가 더욱더 소통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다" 며 바쁜 와중에도 행사를 준비한 간호부와 안산병원 전 간호사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비인후과 최준 교수,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젊은의학자상 수상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최준 교수가 최근 대한두개저외과학회의 젊은의학자 상을 수상했다. 최준 교수는 지난 11월 30일 개최한 2013년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제 20차 정기학술대회 중설부문에서 논문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Temporal bone Fracture(측두골 골절의 평가 및 치료)' 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젊은의학자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12월 크리스마스 점등식



지난 12월 10일 오후 5시 이상우 병원장을 비롯하여 박정호 진료부원장, 서성구 경영관리실장, 김정숙 간호실장 및 각 부서장과 시설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병원정문 진입로를 시작해서 응급센터와 본관사이길, 본관 앞 외래 주차장, 병원로비 등에 밝

힌 수 만개의 불빛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며 2달여간 고려대 안산병원의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점등식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불빛을 보고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생명과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1~2년차를 위한 경력관리(응급간호)교육 열려



간호부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1~2년차를 위한 경력관리교육' 을 개최하였다. 경력관리 교육이란 간호사들의 경력에 따라 그 시기에 꼭 알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 하는 것으로 이번 교육은 경력 1~2년 간호사를 대상으로 '응급간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응급상

황에서의 기도관리, 기관삽관, 응급약물 등 응급상황에 꼭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간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재연하고, 개인별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와 높은 만족도와 함께 신규간호사에서 경력간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기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간호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에서는 경력관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투약간호', '응급간호' 를 각각 연 2회 씩 진행 중이며, 앞으로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Mobile 고대병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병원 Mobile 사이트 - <http://m.kumc.or.kr>



힐링팝콘 드시고 만족도 POP POP!



안산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오전 10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 내원객을 위한 '힐링 팝콘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날 이벤트는 9~11월 친절주제인 '당신을 감동시키는 Attitude'을 주제로 친절리더가 준비한 팝콘을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정오부터는 직원식당 앞에서 내부 고객을 위한 힐링 팝콘 이벤트를 진행해 원내 교직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는 4기 친절리더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4기 친절리더는 2013년 한 해 동안 SMART(Sense, Manner, Attitude, Respect, Team service)를 주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 소아당뇨 가을 건강 교육



안산병원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안산병원 소아당뇨에서 '2013 소아당뇨 환아와 가족을 위한 가을건강교육'을 실시했다. 일일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소아당뇨환아 18명과 가족들을 포함해 총 50여명의 참석자가 함께해 환아와 가족이 함께 질병을 이해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환아 및 가족들에게 올바른 당뇨병 지식을 전하고 혈당조절 등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한 이번 교육은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인슐린 주사와 혈당관리법', '영양 관리' 등 소아당뇨환아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교육에 앞서 환아들과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한 이카펠라 공연이 펼쳐져 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소아당뇨 가을건강교육은 환자 및 가족의 편의를 위해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16일 안산병원 교육에 앞서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은 11월 3일에 안암병원 중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했고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환자안전 Workshop 성황리에 마쳐



지난 11월 14일 오후 3시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3년도 환자안전 Workshop'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상우 병원장, 서성구 경영관리실장, 김정숙 간호실장을 비롯하여 약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행사는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한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병원 내 바람직한 환자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동준 적정진료관리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이상우 병원장)와 함께 ▲환자위험관리의 기초 및 위험관리 현황-임동준 적정진료관리위원장, ▲RCA(근본원인분석)와 FMEA(오류유형 및 영향분석)의 개념 및 실제사례-박유선 적정진료관리팀 부팀장, ▲시설 안전관리-시설 Tracer 및 Disaster 훈련 사례-곽미정 안암적정진료관리팀 부팀장 순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상우 병원장은 축사에서 "요즘 병원계 전체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라며 "이럴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자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문화가 원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환자 안전실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면금지! 당신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2013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을 맞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2013년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11월 19일)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많은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이 참여하여 학대 아동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고 아동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한편,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은 UN이 지정한 아동권리주간의 일환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날이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09년부터 협약을 맺어 매년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아동학대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역 아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의학발전기금 용도

- 발전기금 :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발전을 지원합니다.
- 자선기금 : 희귀난치성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장학기금 : 열의와 실력을 갖춘 우수한 의과대학생을 지원합니다.

기부자 예우

- 학교시설 이용 및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며 세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상 기부자는 존함을 의대 및 각 병원 기부자벽에 새겨 그 고귀한 뜻을 영원히 간직합니다.



문의처

고려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팀
TEL 02-920-5907
FAX 02-920-6200
E-mail : donation@kumc.or.kr

기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열정'을 가진 분들의 몫입니다



